

##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성경말씀: 눅20:41-47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1. 백성들의 호산나 환영, 2. 성전 청소(강도들), 3.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4일 남음, 지도자들의 반발: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

죽기 전에 유대인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주심

1.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당황함, 권위 문제, 요한의 침례(20:2)

2. 제사장, 서기관 참패 이후 사두개인 등장,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논쟁, 일곱 형제 막12:24, 성경 기록을 모른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하다. 결혼 불필요 No!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 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멸의 혼이 들어 있다. 영원히 사는 쪽을 택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서기관이라는 종교인들이 등장한다. 말 그대로 성경 필사자, 똑똑해야 한다. 많은 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학자, 신학자, 신학대교수, 목사 등, 누구라도 이들을 알아볼 수 있다(46, 긴 옷).

초기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이 지나가면 모두가 일어났다고 함.

랍비, 마스터, 심지어 아버지라고 불림, 율법 박사, 노인이나 그들의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음 회당에 가면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서 토라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는 회중을 바라봄.

누구보다도 성경에 해박하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는 본인들의 지식을 이용해 약한 자들의 재물을 약탈한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 예수님의 메시아 입증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 선포, 병, 마귀, 죽은 자도 살림(이사야서 등의 메시아 대언 성취)

예루살렘 입성: 스가랴서 대언 입증, 시편 118편 백성들 환성, 그럼에도 서기관들의 메시아 관은 불변,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다. 반쪽만 알고 있다.

이번에는 주님의 질문

예수님의 말씀(41), 누구의 자손이냐? 구원과 영원이 여기에 달렸다. 마16의 “내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 즉 혈통을 가진 자, 맞는다(미5:2). 삼하7의 다윗 언약, 마1:1, 여기서 끝이면 문제 그리고는 시편110편을 인용하신다. 다윗의 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1절, 처음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의 주는 다윗의 주인 즉 메시아, 아들 하나님(마22, 막12, 눅20, 행2:34-36, 히1:13)

하나님의 오른쪽(막16:19, 히1:1-3 등)

4절, 이 메시아는 구약(레위의 제사장직)을 철폐하고 신약(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가져오시는 분 히5:5, 9-10, 7:17, 21

십자가 사건 이후라야 신약시대

예수님의 논리: 1.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2. 그런데 다윗이 그를 (손자의 손자의 손자) 자기 주님이라고 부름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냐?”(44), 엄청난 질문, 수수께끼, 서기관들이 당황함

주님은 이에 대해 어디서도 설명하지 않음,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1. 출생에 의해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 그의 피가 흐름

2.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의해서 그분은 다윗의 주님

베드로의 설교(행2:34-36), 주와 그리스도

시110:1은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 재림이 없으면 성립 안 됨

방금 전에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 그러나 이들은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

영국 성공회 수장 등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 교황 등이 진화론, 결국 부활 부인

바울의 로마서 1:1-4

서기관들의 문제: 전통에 매여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만 생각함. 주님으로서의 메시아는 No!

즉 이들은 정치적인 눈으로 메시아를 보니 메시아는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음  
 성전도 장사하는 집, 부활도 부인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달리 보임  
 경제적 렌즈: 모두 복을 주는 구절, 남미의 해방 신학: 해방자 예수, 공산주의자들: 사도행전  
 우리는 어떤 렌즈로 성경을 보는가? 아무 렌즈(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또 부활의 주님이 보인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모든 교리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이나 신학교 혹은 특정 목사의 틀이 아니라 그대로 보아야 한다.  
 내 틀에 성경을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성경에 맞추어야 한다.  
 목사도 회중의 압력에 굴복해서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려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창조, 죄, 타락, 심판, 구속, 성육신, 십자가 처형과 부활, 승천, 휴거와 재림  
 1000년 왕국, 성경의 영감과 보존

### 종교인들의 특징

1. 교만(46)  
 바돌로뮤 브루워: 전직 신부, <Pilgrimage from Rome>, 천주교를 떠난 뒤의 순례의 길  
 신부가 된 뒤 워싱턴 시내를 그냥 걸어 다님  
 요즘도 로만 칼리를 하는 목사들이 나타난다. 제사장 행세  
 목사나 집사 등 리더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벧전5:3)  
 자기가 위대해지면 하나님은 작아지게 된다.
2. 욕심(47)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상속 등의 문제를 의논하면 재산을 강탈한다. 과부의 생활비를 빼앗아간다.  
 특별 기도를 해 주고 돈을 갈취한다.  
 목사의 조건 중 하나: 탐심이 없어야 한다(5:2). 수백만 원 짜지 양복, 구두 등
3. 위선(47): 경건한 척 하려고 길게 기도
4. 그 결과: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음(약3:1)  
 그래서 목사와 리더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주님의 경고 메시지(눅12:48)
5. 결국 이들은 백성을 선동해서 주님을 죽이며 예언을 성취함

### 결론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왜 이런 책망과 정죄를 받을까?  
 그들만의 렌즈를 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메시아는 그저 육신적인 구원자 이상이 아님  
 그래서 메시아는 피 속에 다윗의 피가 흐른다는 것 이상을 모름  
 실제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요5:39)  
 육신을 입어야 죽으며 피의 희생을 치를 수 있음,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여 도울 수 있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음, 그럼에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요,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가 재림하신다. 1000년 왕국 통치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히7:22-25  
 바로 이분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에 걸맞은 생활이 나와야 한다. 겸손, 욕심 No, 위선 No!